



KOWIN DC 회장 인사말



친애하는 KOWIN 회원 여러분
 과 지인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벌써 KOWIN DC의
 2014년 봄 뉴스레터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여러 가지
 활동이 담긴 이 뉴스레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KOWIN DC는 현재 회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행사 때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이면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번,
 KOWIN DC의 성장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회원 연수회에는 회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에서의 2014년 회원
 연수회를 통해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또 한인
 여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저희 KOWIN과 같은 조직은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 한국계와 외국계가 다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로 지난 4월 초에 열린 '제 5회
 KOWIN DC 리더십 세미나'에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올해 세미나는 참가자들부터 아주
 다양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대만계 알렉사 후앙 교수의
 삶의 이야기는 모든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또
 KOWIN DC의 회원인 서영숙 씨의 강연과 그의 주도로 열린
 패널 토론 역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매년 4차례 열리는 정기회의때에도 다양한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2013년 12월 회의에선 KOWIN DC 회원이기도
 한 이진숙 MBC 워싱턴 지사장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한 한반도의 정세에 관해 강연했으며, 2014년 2월
 회의에선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커틀러 디렉터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KOWIN DC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열린 갈라 행사에선 모두가 멋지게
 차려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고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특별 참석해주신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키티 헤플린과 케이티 지글러씨는 이후 KOWIN
 DC 회원을 위한 특별 리셉션을 준비했고 지난 4월 9일
 프리어 새클러 갤러리의 줄리언 레이비 관장의 초대로 열린
 특별 리셉션에서 KOWIN DC 회원들은 루이즈 코트 도자관련
 학예사 외 9분의 안내로 '학과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를 관람하고 미전시 소장 작품까지 보는 등 흥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KOWIN DC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계인들 뿐만아니라
 우리가 속한 더 큰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회장 김영기 올림

제7호 뉴스레터 목차

- 회장 인사말
- 제4회 리더십 세미나
- 2013 홀리데이 갈라
- 2013 제4차 정기회의
- 2014 회원 연수회
- 2014 제1차 정기회의
- 제5회 리더십 세미나
- 회원 소식
- KOWIN DC 지부 임원진 및 위원회

발행인	김영기 KOWIN DC 회장
편집장	신수경, 박숙자 출판위원회 공동위원장
교열편집인	강윤경
편집 보조	정강은 KOWIN DC 펠로



제4회 리더십 세미나

2013년 11월 16일



KOWIN DC는 남명호와 멜리사 박 공동 세미나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또 하나의 성공적인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 4회 리더십세미나는 "지역사회, 세계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주미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뉴욕 한인커뮤니티재단 (KACF)의 경 B. 윤 사무총장은 "Full Circle: Receiving and Giving"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멜리사 박을 기두로 그레이스 한 울프, 윤양로, 베키 리, 주다이 리 알로웨이 등이 패널로 나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봉사"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점심 시간에는 특별히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WCCW)에서 준비한 위안부에 관한 동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이어 주다이 리 알로웨이가 이메일 에티켓에 관한 짧은 강연을 했다.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멘토링 세션에선 10개의 직업군으로 나누어 10명 이하 소그룹 별 멘토링이 이뤄졌다. 총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013 홀리데이 갈라

2013년 12월 7일



KOWIN DC의 연말 행사인 홀리데이 갈라가 워싱턴DC의 유서 깊은 코스모스 클럽에서 열렸다. 함은선 갈라 준비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으며, 총 8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함은선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본 행사는 김영기 회장의 인사말과 강도호 총영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2013년 한 해 KOWIN을 위해 수고한 남명호, 함은선씨에게 감사패가 수여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2부 행사는 음악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한인 성악가 바리톤 문기현씨가 피아니스트 최다은씨의 반주에 맞춰 오페라 카르멘 수록곡인 'Chanson du Toréador'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외에도 베스트 드레서 경연대회와 라이브 밴드의 연주가 곁들여진 댄스 타임 등이 이어졌으며, 한 칸에선 KOWIN 펠로우십 마련을 위한 사일런트 옥션이 진행됐다.



2013 제 4 차 정기회의

2013년 12월 29일



2013년의 마지막 4차 정기회의가 30여명의 회원 및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슨스 코너 소재 우래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의 개인 소개와 김영기 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후 각 담당자(재무, 세미나, 갈라, 출판, 기금모금)들의 사업 보고가 이어졌고 KOWIN의 다가오는 행사에 관한 논의도 오고 갔다. 이날 특별 강연자로 나선 이진숙 MBC 워싱턴 지사장은 "한반도의 최근 정세"를 주제로 장성택 처형 전후 나타난 북한의 정세를 자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강연 후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2014 회원 연수회

2014년 2월 7일~9일

KOWIN DC 회원들 12명이 애나폴리스의 경치 좋은 곳으로 2박 3일간의 회원 연수회를 다녀왔다.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고 KOWIN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논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연수에 참가한 회원들은 각자 워크샵을 준비해와 회원들과 정보를 나눴다. 임정란씨가 색깔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트루 컬러'라는 워크샵을 진행했으며, 박숙자씨는 자신의 단편소설 '비밀서랍'에 관해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소설을 미리 읽어온 회원들이 작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워크샵 외에도 회원들은 다가오는 행사와 KOWIN DC의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전 FDA 독성학자인 박숙자씨와 이노바 병원의 남명호 박사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열띤 대화를 나눴다.



회원들은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양한 친목 도모의 시간도 즐겼다. 함은선 부회장의 지도 아래 다같이 노래를 부르며 친교를 나눴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추위를 잊게 해주는 야외 노천 스파를 즐기기도 하고, 강혜옥씨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며 애나폴리스 시내를 구경하기도 했다. 참석 회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같은 친목 도모를 통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된 것 같으며 소감을 전했다.



2014 제 1 차 정기회의

2014년 2월 23일



2014년의 첫 정기회의가 김영기 교수 자택에서 열렸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KOWIN DC 회원인 그레이스 한 울프 시의원이 참석해 자신의 3선을 향한 회원들의 격려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스미소니언 프리어 새클러 갤러리의 키티 헤플린씨가 특별 참석해 KOWIN DC를 위한 특별 리셉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아시아 정책담당 민디 커틀러씨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연을 해 회원들로부터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았다. 강연 후 다과를 즐기면서 각 분야별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기금 모금 계획과 다가올 행사 일정에 대한 논의도 오고 갔다.

제 5 회 리더십 세미나

2014년 4월 5일



제5회 KOWIN DC 리더십세미나가 조지워싱턴대 마운트버논 캠퍼스에서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영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알렉사 후앙 교수의 기조연설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조지워싱턴대 영어학과, 연극학과, 국제학과 그리고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인 후앙 교수는 2013년 돌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자신이 항상 낯선 환경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학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놔 주목을 받았다. 감동적이고 시적인 기조연설이 끝나자 참석자 전원이 기립 박수를 해 후앙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서영숙 씨의 사회로 의료, 정부, 법조계 등 각계에서 활약중인 한인 여성들이 토론에 나서 미국 사회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들의 특징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직업별 멘토링 세션에선 의료, 법, 정부, 경영, 예술 등 총 9개 직업군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들이 멘토로 나서 차세대들에게 소그룹 멘토링을 제공했다.



회원 소식

수잔 김 도우드 갈리



수잔 김 도우드 갈리 박사가 National Association of Asian American Professionals DC 지부의 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모교인 스미스 컬리지 클럽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최근 the Diversity and Inclusion Task Force for the Association of a Junior Leagues International 에도 이름을 올렸다.

불교철학이 삶의 일상사에 대한 그녀의 명상과 잘 어울려져 있어 이 책은 학자들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시대를 앞서간 여성의 삶에 관심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잘 읽힐 것으로 보인다.

신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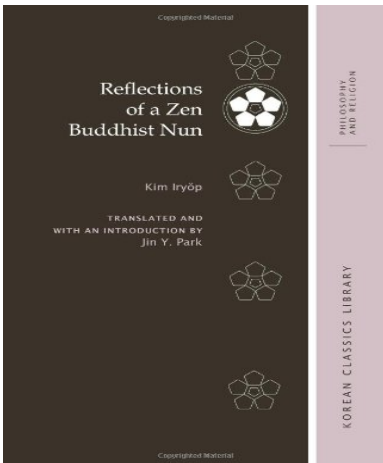


2012년 4월 IMF 에서 은퇴한 후 신수경씨는 유럽여행 중 주로 그리스에서 지냈으며 2013년 8월말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임명된 부군을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신수경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13년 3월 15일에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임명 받았다. 또 서울대학교, UNICEF, 김 and 장 법률 사무소 등에서는 국제 프로토콜 과 부드러운 인관 관계 (soft skills) 에 관한 강연을 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정책 및 연구 (과학기술 최고과정) 에 대한 6 개월 수료과정을 논문과 함께 마쳤으며, 2014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으로부터 모범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다.

박진영

박진영 교수 (아메리칸 대학 철학교수, 동양학 프로그램 디렉터)가 새로운 책을 출판했다. 20세기 초에 여류작가이자, 신여성으로 활동했고, 1930년대 중반 불가에 귀의해 수덕사에서 여승으로 삶을 산 김일엽 (金一葉 1896-1971) 스님의 책, <어느 수도인의 회상>이 <Reflections of a

Zen Buddhist Nun: Essays by Zen Master Kim Iryöp> 으로 하와대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됐다. 이 책에서 김일엽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여승의 입장에서 회고한다. 이 책은 불교의 가르침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의미, 사랑, 종교, 신, 선과 악 등 다양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일엽의





김광자



KOWIN DC 자문위원이자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 회장인 김광자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인식 재고 및 확산에 대한 공로로 한국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남명호



남명호 박사는 2013년 11월 18~26일간 캐리비안의 아메리칸대 의과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일주일 간 이어진 수업에서 그는 3학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병리학 수업을 진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결국 그는 2014년 방문 교수로 재초정됐다. 사진은 직접 찍은 캐리비안의 해변.

김영기



김영기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어문학과장이 이창래 작가를 만나 그의 신간소설 <이런 만조에 On Such a Full Sea>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위 사진은 2014년 2월 3일 프린스턴대학 문예창작 도서관에서 이재안 사진가가 찍은 사진이다. 인터뷰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 종합 계간지 *Koreana* 2014년 봄편에 실렸다. 인터뷰 전문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koreana.or.kr/months/news_view.asp?b_id_x=3368&lang=ko&page_type=list). 이 인터뷰는 5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편 *Koreana* 잡지에 출판되었다.



윤금진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DC 사무소장은 2014년 2월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부 연구분야는 박물관학으로 논문제목은 '한국박물관 국제교류변천 연구-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다.



2014 KOWIN DC 임원진 및 위원회

상임 위원회(Executive Board)

회 장	Young-Key Kim-Renaud (김영기)
자문위원회	Christine Choi (김광자) Suzanne Kim Doud Galli Sukza Park Hwangbo (박숙자) Sami Lauri (함은선) Jung Hee Lee (이정희) Lucy Myong Ho Nam (남명화) Kim Sohn (손목자) Sue-Kyong Shin Vittas (신수경) Grace Han Wolf Helen Won (원헬렌)
수석 부회장	Sue-Kyong Shin Vittas (신수경)
부회장	Sami Lauri (함은선) Jung Hee Lee (이정희)
사무총장	Helen Won (원헬렌)
서기	Yunkyoung Kang (강윤경)
재무	Jung Hee Lee (이정희) Adela Kim (김영주)
감사	Sue Pender
펠로우/ 웹마스터	KangEun Jeong Olson (정강은)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ttees)

출판/PR	Sue-Kyong Shin Vittas (신수경) Sukza Park Hwangbo (박숙자) Hannah Y Kim (김한나) Younghee Jamie Sheen (신영희) Yunkyoung Kang (강윤경)
회칙	Sukza Park Hwangbo (박숙자) Sinyeon Kee (기신연)
멤버십	Jung Hee Lee (이정희) Helen Won (원헬렌) You Sook Lund (임유숙)
모금활동	Suzanne Kim Doud Galli Christine Choi (김광자) Sung Hee Rhee (이성희) Anne Choe Jenet Ahn Grace Han Wolf
IT/ 페이스북	Hia Kim Suzanne Kim Doud Galli
연회	Sami Lauri (함은선) Jenet Ahn
세미나	Young-Key Kim-Renaud (김영기) Miok Pak (박미옥) Yongsook Victoria Suh (서영숙) Yunkyoung Kang (강윤경) KangEun Jeong Olson (정강은)
멘토링	Hannah Y Kim (김한나)
프로그램	Myung Ja Shim Lee (심명자) Sung Hee Rhee (이성희)